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2년 4월 25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기술정책과 이재홍 과장(2110-5171), 오종희 사무관(5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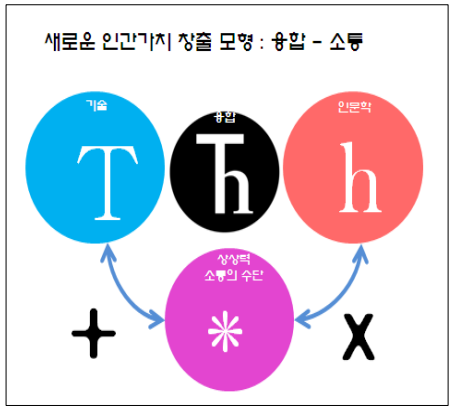
기술과 인문간 소통을 위한 허브기관 생긴다

- 지경부, 기술인문융합창작소 개소식 개최 -

□ (개요)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기술·인문 융합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25일 기술·인문융합창작소 개소식(Techno Humanities Atelier, 약칭 Atelier T*H*)을 개최함

* T*H : (*)는 (+)와 (×) 결합으로 Technology와 Humanities의 융합과 소통을 의미

techno humanities
atelier t*h
기술인문융합창작소



○ 이날 행사에는 홍석우 지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황창규 전략기획단장, 김용근 산업기술진흥원장, 정경원 한국정보통신진흥원, 나경환 생산기술연구원장,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순종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등 유관기관장,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참석

○ 사무공간은 인문, 예술분야 등과의 교류여건을 감안하여, 국내 문화예술 활동의 메카이자 젊음의 상징인 동숭동 대학로에 마련

□ (설립배경)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인문·기술의 융합에 의한 창조적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며, 창조적 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 (성공사례)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 스티브잡스는 애플은 창조적인 기술과 상품을 만들기 위해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 서 있다고 선언하며 아이폰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으며,

-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기술개발의 영감을 인문학에서 얻는다며,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창조하여 8억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이 과거 Fast-Follower 시대의 모방 기술혁신에서 탈피하여 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기술혁신은 필수적

○ (추진현황) 국내 주요 기업* 및 대학**은 다학제간 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인 인재양성 및 융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며 대학과 기업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구심점도 부족

*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LG전자 미래IT융합연구소 등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포스텍 인문기술융합연구소,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서강대 아트&테크놀로지 전공 등

- 기업들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통합적 사고와 전문성을 보유한 파이플러스형(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도 시급

* (I형 인재)1개 영역 전문화 → (T형 인재)1개 영역 전문화 + 다양한 영역 섭렵 → (π형인재)2개 이상 영역 통섭 → (π^+형 인재)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의 만남

- 이에 따라 대학과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인문과 기술간 융합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설립을 추진

○ (정책방향) 지난해 11월 발표한 사람중심의 따뜻하고 창조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R&D 36.5℃ 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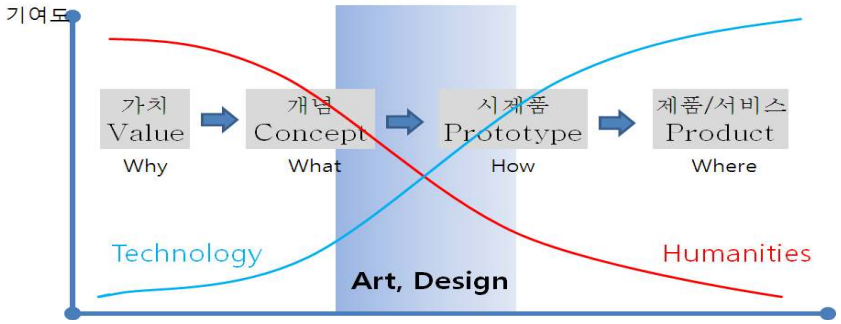
□ (역할) 창작소는 대학, 기업 및 연구소 등 민간의 '소통·융합의 열린 공간'으로서 기술과 인문간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창의적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는 허브(Hub) 역할을 수행할 계획

○ 또한, 인문·기술 융합 연구의 Think-Tank로서, 혁신적 유망 기술·제품개발을 위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술에 접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

-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미래예측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양성 지원, 융합을 저해하는 R&D 프로세스 개선 등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

< 추진목표 : 「Creative & Disruptive Technology」 개발 >

Planning			Implement
1차년도 (기반조성)	2차년도 (아이디어 발굴)	3차년도 (개념화)	4차년도 이후 (실행)
· 지식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미래사회 예측 ·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관리	· 융합 연구 기반 고도화 지속 · 인문·기술 융합 제품·기술군 도출 · 인문·기술 융합 기반 제품 개발 로드맵 수립	· 인문·기술 융합 기반 제품·기술 개발 Concept 설계 · 사전검증을 위한 Pre-프로덕션 적용	· 실제 R&D 본격 추진 * 기존R&D 사업 활용
<창작소 주도>		〈 연구소, 기업 주도 〉	



< 기술·인문 융합의 개념 >

□ (조직) 창작소 소장에는 이남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이 선임됨

○ 이남식 소장은 전주대 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을 역임하며 원활한 소통의 리더쉽을 보유하고, 현재 제2대 국제미래학회 회장으로서 미래예측을 통한 창의적 식견을 가진 인물로 평가됨

○ 이남식 소장은 이날 창작소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 "기술에 의한 수리적인 상상력(mathematical imagination)과 인문에 의한 서술적(narrative) 상상력이 디자인에 의한 시각적(visual) 상상력을 통해 결합되어 기술과 인문의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 「Expect the Unexpected」를 창작소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 "상상도 못한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소통의 마당이 이제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창작소 구성은 소장을 포함하여 우선 10명으로 구성하고, 정규직 인력을 최소화하고 외부기관의 전문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관간 소통을 확대하고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

□ 이 자리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First-Mover로의 도약을 위해 기술·인문 융합을 통한 창의적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기술·인문융합창작소를 허브로 하여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그 아이디어가 아이폰, 페이스북 등과 같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는 기술로 발전하길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붙임>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운영방안, 이남식 소장 발표자료

참고1 행사 개요

□ 추진배경

○ 창조적 기술혁신을 위해 기술·인문 융합을 체계적으로 연구·촉진하는 「기술·인문 융합창작소」 설립 추진 및 공식 출범을 위한 개소식 개최

* (가칭) 인문·기술융합 연구소 설립 등 「R&D 36.5℃ 전략」 발표('11.11)

□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12.4.25(수), 11:00~13:00, 기술인문융합창작소

*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1-93번지 더 브릭스빌딩 (대학로 2번 출구)

○ 참석대상 : 장관, 전략기획단장 등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위원, BH 연설기획비서관, 국회 지경위 수석, KIAT 등 유관기관장,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자문위원, 청년리더* 등 40여명

* 장관 강연한 대학(서강대, 성대 등)의 학생 또는 행사(차세대공대리더)의 대표

□ 행사일정(안)

구분	일정		비고
11:00~11:10 ('10)	Opening 공연	3층	스마트폰 연주 동호회
11:10~11:15 ('5)	인사말씀		창작소 소장
11:15~11:25 ('10)	축사		지경부장관 등
11:25~11:40 ('15)	운영방안 발표		창작소 소장
11:40~11:55 ('15)	현판식(기념촬영)		주요 인사
11:55~12:05 ('10)	사무공간 투어	3층→옥상→5층	주요 인사
12:05~13:00 ('55)	오찬 및 토의	5층	주요 인사

□ 주요 참석자(안)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비고
1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전략기획투자협의회
2	황창규	R&D 전략기획단	단장	〃
3	김경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실장	〃
4	정양호	산업기술정책관	국장	〃
5	안미정	R&D 전략기획단	MD	〃
6	주영섭	R&D 전략기획단	MD	〃
7	홍순형	R&D 전략기획단	MD	〃
8	박상덕	R&D 전략기획단	MD	〃
9	백성기	포항공과대학교 (前 포항공대 총장)	교수	〃
10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前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교수	〃
11	정경원	한국정보통신진흥원	원장	유관기관
12	최영미	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	〃
13	신용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
14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
15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
16	이순종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
17	최평락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원장	〃
18	이건표	LG전자	부사장	자문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비고
19	이재철	SK 텔레콤	상무	〃
20	이이남	아트이이남	대표	〃
21	진형준	홍익대학교	교수	〃
22	이진우	포스텍	교수	〃
23	이광형	KAIST	교수	〃
24	김영준	삼성디자인센터	전무	〃
25	강정인	서강대학교	교수	〃
26	김호성	지식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타
27	김영수	BH 연설기획비서관	비서관	〃
28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
29	최은경	세종대학교	교수	〃
30	이혜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31	김석형	공학한림원 차세대리더	회장	〃
32	최재훈	서강대 대학원	학생	〃
33	조하연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학생	〃
34	양재혁	서울대 산업공학 대학원	학생	〃

기술인문융합창작소 (Techno Humanities Atelier)의 기능과 역할

그간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역량은 크게 신장되어 많은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fast follower). 그러나 아직 우리니라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원천 기술이나 새로운 개념의 가치를 창출하는 First Mover에 가지는 이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2010년 스티브잡스는 WWDC (World Wide Developer's Conference)에서 애플은 창조적인 기술과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 서 있다고 선언한 것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융합해야하는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맞추어 연구자들에게 서로 융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R&D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기술인문융합창작소가 출범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진정한 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닌가 한다.

기술인문융합창작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1. 융합 콜로키엄 – 새로운 이슈들에 대하여 기술의 관점 또는 인문학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동시에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담론의 장을 제공한다.
2. 융합워크숍 – 기술이나 인문학이 융합되기 어려운 것은 “소통”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인문학자들은 서술적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을 발휘하는데 대비하여 과학기술자들은 실증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전문성이 있다보니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양자를 연결하는 (bridging) 역할을 상상력을 실제로 표현하는 예술, 디자이너들 워크숍에 크리에티브디렉터로 참가하여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창조의 결과을 체험하는 워크숍 임.
3. 창조리더십세미나 – 창조적인 리더인 세종대왕,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는 스티브잡스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창조적 리더의 DNA가 어떠한 것인지를 R&D 리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임.
4. 미래예측워크숍 – 새로운 가치창조는 無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움직이는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여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에 들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므로 기술, 사회, 문화적인 미래예측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시 되고 있음.

그 외에도 기술인문 융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e-library화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차세대 융합리더를 이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이상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미래에 진정한 리더국가가 되며 과학과 기술이 인류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Expect the Unexpected" 상상도 못한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를 꿈구는 이들을 위한 소통의 마당이 이제 열린다.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이곳이 이 시대의 “집현전”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기술인문융합창작소 (Techno Humanities Atelier) 이남식 소장 약력

1955년 서울에서 출생
중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에서 산업공학 (인간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음.
University of Michigan 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에서 연구원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인간공학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일본의 Ikeda Eng. (Nissan계열사)과 자동차시트의 안락감을 측정하는 연구결과 특허 및 디트로이트, 동경모터쇼에 새로운 개념의 시트를 출품 하였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간공학연구실의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재임기간동안 G7프로젝트의 하나인 감성공학기술연구개발의 연구 기획에 힘써 1997-2002년간 약 700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대형국책과제가 출범되도록 기여하였음. 기간동안 ISO-TC159 (인간공학) 한국대표를 참여하였으며, 대한인간공학회 국제이사 및 IEA (국제인간공학회) Councilor를 역임하였으며, Human Factors Society, Ergonomics Society 정회원으로 활동.
1994년-1997년은 한성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에서 산업안전공학 프로그램을 설립하였으며 1995년부터 삼성전자의 자문교수로 활동하면서 Human Interface팀을 설립토록 함. 또한 삼성전자의 IDS (Innovative Design Lab of Samsung)의 교수로 활동 함.
1997년-2003년에는 산자부에서 설립한 국내 최초의 대학원대학교인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 (IDAS)의 부학장, 부총장, 학장으로 국내 최초의 국제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같은 기간 동안 연구책임자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DIC (Design Innovation Center) 및 IDTC (International Design Trend Center)를 설립하였으며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린 “New Millennium"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음. 같은 기간 한국디자인학회의 이사로 재직 하였으며 2002년 부터는 대한인간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기간 중 IEA 2003 Congress Seoul (3년마다 열리는 국제인간공학 학술대회, 40여 개국 1500명이 참석하여 COEX에서 개최)을 성공적으로 마침.
2003년-2011년에는 전주대학교의 총장으로 산학협력과 연구개발에 힘쓴 결과 NURI사업 (X-edu사업-디지털문화콘텐츠 인력양성), HUNIC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생산디자인공학분야 특성화), 창업선도대학프로그램 등 1000억 원 이상의 정부 프로젝트를 대학에 유치하였으며 스타센터나 스타타워를 건립하여 대학의 위상을 높였으며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을 성공적으로 위탁운영한 공으로 캄보디아정부로부터 국제친선훈장을 받음. 또한 미국의 자매대학인 블룸필드대학으로부터 명예인문학박사학위를 받음.
2011년 9월부터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제미래학회(Global Futures Studies Association) 공동회장을 맡고 있음.